

쏟아지는 복지사업 거덜나는 자치살림

0~2세 무상보육 광주시 부담 628억 열악한 재정 압박...국비 부담 늘려야

정부가 올해 복지분야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을 대폭 확대하면서 자치단체들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 가뜰이나 어려운 살림에 늘어난 복지관련 사업 대응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50%~60%에 불과한 국비 부담률을 높이고 지방비 부담률은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신규로 시작되는 복지분야 사업과 확대되는 복지사업은 총 15건으로, 이 사업에 투입되는 지방비 부담액만 96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비 부담액 중 광주지역의 5개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예산도 222억9000만원에 이른다. 공무원 월급도 예산에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일부 자치구들의 재정부담은 더욱 커진 셈이다.

이 중 올해 3월부터 시작되는 0~2세 무상보육사업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로 구성돼 광주시가 올해 부담해야 할 예산은 628억 원이며, 광주지역의 5개 자치구의 부담액은 205억 원에 이른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예산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광주시와 각 자치구들의 재정 압박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자치구들은 우선 예비비를 사

용한 뒤 하반기에 추가경정예를 통해 부족한 비용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건축예산 속에 또다시 마른 갈래는 짜낼 수밖에 없다. 이밖에 올해 신규로 시작된 정신보건 트라우마센터 시범사업과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지역아동센터 주말운영비 지원 사업 등도 국비 부담률이 50%밖에 되지 않아, 나머지 50%는 시·구가 부담해야 할 몫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 노인 돌보미 서비스 등 11건의 복지사업도 확대돼 지방재정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복지분야의 사업을 늘리고,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정부가 일반적으로 추진하면 정부는 생색만 내고 부담은 지방에 떠넘기는 꼴"이라며 "국비 부담률을 상향하든지, 사전에 지방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17일 대전시정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6대 광역시장 협의회에 참석한 강운태 광주시장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비의 40%를 자치단체가 떠넘기면서 정부의 보육업무 담당자는 자치단체에 의존 한번 묻지 않았다"며 "무상으로 지원받으려고 너도나도 보육원에 보낸다면 지방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시장을 비롯한 전국 6대 광역시장들은 이날 영유아 보육료 국비 지원 확대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국비 부담률을 현행 60%에서 최대 90%로 확대하고, 0~2세보다는 보육 수요가 많은 3~4세부터 무상보육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정욱기자 cki@kwangju.co.kr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2012 복지분야 국비지원 신규사업

※ 총 4건 1914억(국비 1,011, 시비 697, 구비 206)

사업명	예산액(백만원)	비고(%)
0~2세 무상보육	177,400 (국 94,600 시 62,800 구 20,500)	국 60 시 28 구 12
정신보건트라우마센터 시범 사업	13,525 (국 6,762.5 시 6,762.5)	국 50 시 50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센터 운영	180 (국 90 시 90)	국 50 시 50
지역아동센터 주말 운영비 지원	380 (국 190 시 95 구 95)	국 50 시 25 구 25



미술 실기...합격 작품은? 2012년도 조선대학교 미술학과 실기 시험이 치러진 17일 미술대학 내 강당에서 심사위원들이 수험생들의 작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조선대 미술학과 미술실기부 등에서 135명 모집에 404명이 지원해 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월풀, 한국산 냉장고 이어 세탁기 반덤핑 제소

광주 삼성전자 협력업체 초비상

반덤핑 확정판 대미 수출 중단 줄도산 불가피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한국산 냉장고에 이어 세탁기까지 반덤핑 제소하면서 삼성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광주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자칫 반덤핑으로 관정되면 미국 수출 전면 중단으로 이어져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타격은 물론 지역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 <관련기사 8면>

17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월풀이 삼성·LG 등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제소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19일(미국시각) 반덤핑 조사 개시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자국 기업인 월풀의 제소를 미 정부가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경우 지난해 10월 삼성과 LG의 하단냉동고형 냉장고(프렌치도어 냉

장고)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에 이어 세탁기까지 통상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 최악의 경우 한국산 가전의 대미 수출길이 막힐 것으로 우려된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27일 삼성 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프렌치어 냉장고에 32.2%의 덤핑률을 예비판정해 부과한 상태다. 프렌치어 냉장고를 한국에서 팔 때보다 미국에서 이만큼 더 싸게 팔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예비판정이 확정되면 2%의 관세를 물던 삼성 프렌치어 냉장고는 32.2%를 추가해 34%가 넘는 고율 관세를 부과받게 돼 수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여기에 세탁기까지 반덤핑 판정이 나면 삼성은 가전제품의 대미 수출을 접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전체 매출은 5조원 가량으로, 이 가운데 미국으로 수출되는 냉장고와 세탁기의 비중은 1조원(9억달러)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이 중단되면 고스란히 전체 매출의 20%가 감소하게 되고, 파장은 지역 협력업체로 이어져 약 5000억원 이상 거래가 끊길 것으로 추산된다. 사실상 지역경제가 붕괴될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지역 가전업체 관계자는 "삼성사의 경우 광주를 떠나 인건비가싼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서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면 되겠지만 지역 협력업체들은 직격탄을 받아 줄도산하고 지역경제는 파산지경에 놓일 것"이라며 "삼성사는 물론 정부와 광주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선거기간 정부정책 찬반활동 가능

선관위, 180일전 금지 풀어...금품선거 자수 포상금 5억으로 상향

앞으로는 정부 정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상시적으로 찬반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과천 중앙선관위 본청에서 19대 국회의원 선거 대책회의를 갖고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 ▲3대 중요 선거범죄 총력 단속 ▲사이버테러 대응대책 등 분야별 관리대책을 정하고 이를 전국 16개 시·도 선관위에 시달렸다.

이번 대책은 지난 13일 인터넷과 SNS를 통해 낙선운동을 포함한 광범위한 선거운동을 허용키로 한 것이 이어 오프라인 선거운동의 보장범위 확대가 골자다.

개인적인 활동에 한해 후보자나 정책에 대한 찬반이 전폭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특히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시민단체·사회단체가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정책 찬반활동을 공식선거법상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보고 단속해왔다. 다만,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명칭을 직접 거명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컨대 '현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잘됐다 또는 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한나라당의 4대강 사업이 잘됐다 또는 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선거와 관련

한해 금품을 전달하거나 제공한 사람이 자수하면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천헌금, 음·문·동책 및 유권자 등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인터넷 댓글 아르바이트 등 매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품을 전달하거나 제공한 사람의 자수 포상금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테러에 대비, 사이버테러포수 등 다중방어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 60주년
 2월7일 접수 마감
3.1절 전국마라톤대회

'공황장애' 한방(韓方)으로 치료!

공황장애(恐慌障礙)를 글자대로 풀이하면 공포감에 당황하는 증상이라는 뜻이다. 마치 어린 새가 동우리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환경에 무섭고 당황해 하는 것처럼 이런 증상이 우리 몸에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처럼, 짐의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심장이 뛰고 숨이 막힐 듯하면서 어지러움과 식은땀을 흘리고 손발이 차가워 마비될 것 같은 감각을 느낀다. 동시에 무슨 응급상황이 신체 내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이 심장이 곧 맞아서 죽든지 아니면 뇌졸중으로 쓰러질 것만 같고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즉시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달려 가게 만든다. 그리고 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해보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이 공황발작을 겪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이다.

공황장애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 생기는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공황장애의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은 신체적인데 있다는 주장에 많은 신경의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 즉 뇌의 어떤 생화학적 기능장애 때문에 이 병이 생기는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어떤 학자들은 위험을 탐색하는 대뇌기능이 지나치게 항진되어 온다고 주장하고 또다른 학자들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정보기능이 너무 예민해진 탓이라고 주장한다.

현재로서는 공황장애는 유전적인 요인, 체질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및 정신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방에서는 심담기허(心膽氣虛)와 간기울결(肝氣鬱結)을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심비양해(心脾兩虛), 심신불고(心腎不交), 위중화원(胃中不和) 등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자연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경희한의원

사람들은 항상 성공을 향해 바쁘게 달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결과가 맞지 않으면 불행이라고 속이 상해하고 병까지 얻습니다. 이젠 목표를 조금만 낮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며 병을 얻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방적인 진료가 아닌 환자의 마음을 살피고 아무런 지는 가족주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료 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과·이비인후·피부과, 한방소아과, 침구과

진료 안내 • **환병 / 스트레스 질환**
 - 불안, 초조, 가슴떨림
 - 상열감, 안면홍조, 강년기 장애
 - 신경성 두통, 불면증, 우울증
 - 수험생 집중력 저하

진료 시간 평 일 : 오전 9:30~12:30 / 오후 2:00~6:30
 토요일 : 오후 4시까지 진료 공휴일/일요일 : 휴진

진료 문의 TEL 062)365-1541
 광주 서구 화정동 추선회관 건너편

침·뜸·부항은 한의사에게! 한약은 한의원에서!

1)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거나 심장박동이 빨라짐
 2) 땀을 흘림
 3) 손, 발 혹은 몸이 떨림
 4) 호흡이 가빠지거나 숨이 막히는 느낌
 5) 흉통 또는 흉부 압박감
 6) 질식할 것 같은 느낌(목이 눌리거나 졸리는 감각)
 7) 메스꺼움 또는 복부 불편감
 8) 자제력을 잃거나 미칠 것 같은 두려움
 9) 비현실감 또는 이질감

10) 죽을 것 같은 두려움
 11) 오한 또는 열감을 느낌
 12) 어지러움과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어지러움, 불안정감, 머리 멍한 또는 졸도)
 13) 감각이상(손발이 저리거나 마비되는 느낌)

한방에서는 공황장애를 마음속에 응어리진 갈등 즉 울화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나타낸다. 치료처방으로는 보혈안신제인 보혈안신탕이나, 소간해울제인 소간해울탕 등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환자 한사람을 실제로 치료할 때 어떤 치료 전략을 세우고 약물을 어떤 것을 택하여 어떻게 사용

화정동 주재추선회관
 화정동 주재추선회관
 화정동 주재추선회관
경희한의원
 * 주차장 연비 * 건물 앞 주차장 연비